

李仁孫(1477~1543) 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이 은 주*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흙곡공 묘 출토복식의 실측치수와 실측도 |
| II. 李仁孫 묘의 출토복식 유형과 특징 | 1. 철릭(1) |
| 1. 철릭 | 2. 철릭(2) |
| 2. 直領 | 3. 철릭(3) |
| 3. 襟胡 | 4. 직령 |
| 4. 條兒 | 5. 답호 |
|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 연구자는 全義李氏清江公派花樹會에 清江公 李濟臣(1536~1584)의 《清江集》에 대해 문의를 드리던 중 화수회에서 출토복식류 몇 점을 소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문중의 배려로 98년 8월 24일에 귀한 유물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유물들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여 화수회에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문중의 자료로만 보존하기보다는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문중의 승낙을 얻어 발표의 기회를 갖 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지난 97년 3월에 경북 영주시 이산면에서 출토된 掌隸院 判決事(정3품) 金欽祖(1461~1528) 묘의 출토복식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친 즈음이어서 15년간의 시간 차이들 두고 돌아가신 두 어른의 복식을 비교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해 5월 2일에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에서 흙곡공보다 5년 앞서 타 계한 慶州鄭氏 溫公의 출토복식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실증적 자료를 검토해 본다면 16세기 전기 복식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여 조선 전기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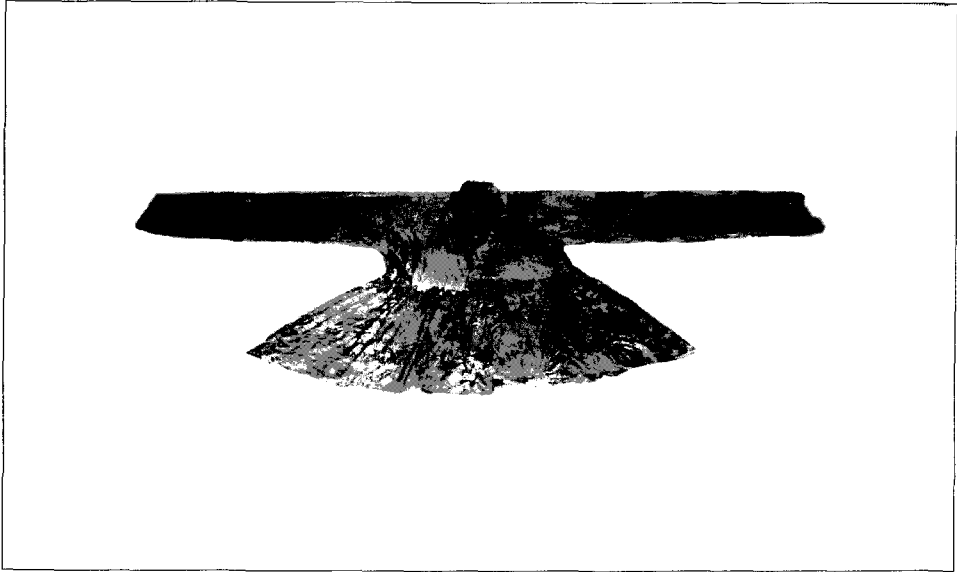
II. 李仁孫 묘의 출토복식 유형과 특징

조선 전기의 복식 형태는 성종대의 문헌인 《樂學軌範》이나 그간 조선 전기로 판명되거나 추정된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李季胤(1431~1489)¹⁾, 金欽祖(1461~1528)²⁾, 鄭溫(1481~1538)³⁾, 李仁孫(1477~1543), 丁應斗(1508~1572)⁴⁾, 李應台(1556~1586)⁵⁾, 順天金氏(임란 전)⁶⁾, 碧珍李氏(?~1585)⁷⁾, 李彦雄(임란 전) 및 洪係江(임란 전)⁸⁾, 金德齡(1567~1596)⁹⁾ 등의 조선 전기 분묘에서 출토 복식 유물을 통해 전기 복식의 실증적인 형태 특징의 파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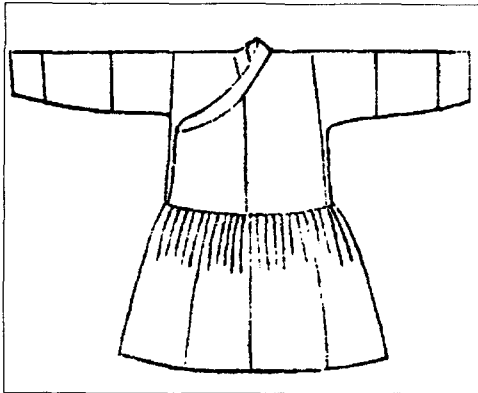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인 이인손(1477~1543, 歙谷公, 淸江公의 祖父)의 유물은 현재까지 출토복식 보고가 이루어진 조선 전기 네 번째 묘에 해당된다. 현재 이인손의 출토 복식류를 소장하고 있는 全義李氏淸江公派花樹會(이하 화수회라 칭함)의 설명에 따르면, 1967년 서울 대방동에 있던 묘를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로 이장할 때, 9점의 복식류와 자기 등이 수거되었다고 한다. 이를 소장하고 있던 東垣公 유족들이 지난 98년 6월에 출토복식류 6점을 화수회에 기증함에 따라 보관하게 된 것이다. 당시 출토된 복식류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을 추려서 북한강의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말린 후 지금까지 특별한 방법 없이 오동나무 상자에 접어서 보관해 왔다고 하는데, 유물 상태는 모두 좋은 편이다. 발굴 당시에 대한 화수회의 제보 내용과 유물의 상태로 보아 6점 모두 大斂에 사용되었던 斂衣로 추정된다. 현재 화수회에 소장되어 있는 복식은 철릭 3점, 직령 1점, 담호 1점, 條兒 1점으로 모두 6점인데, 이들 유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朴聖實, 1993. 「廣州郡 突馬面 朽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韓國服飾』 第11號, 57-75.
- 2) 이은주, 1998. 「金欽祖(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 자료분석」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榮州: 榮州市), 229-326
- 3) 박성실, 1998. 「坡州 金陵里 出土 慶州鄭氏 유물 小考」 『韓國服飾』 第16號, 31-89
- 4) 朴聖實·高富子, 1991.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鄭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韓國服飾』 第9號, 45-57 & 133-157.
- 5) 정식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으나 1998년 4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경북 안동시 정상동 소재의 固城 李氏 應台(1556~1586)의 묘에서 수거한 염습의 자료가 있다(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 6) 金東旭, 1983. 「壬亂 前後期の 出土服飾」 『壬亂 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淸州: 忠北大學校 博物館), 13-191
- 7) 尹容鎮·李秉傑·朴聖實, 1991. 「漆谷 仁坪洞 李氏墓 收拾調査」 『古文化』 第38輯, 43-71.
- 8) 朴聖實,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世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9)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編, 1986. 『文化財大觀』 重要民俗資料篇 下(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20-123.

1. 철릭



<그림 1> 歙谷公 묘 출토의 철릭(뒤집힌 상태)



<그림 2> 歌童의 戎服: 土紅綿布 單帖裏
(《樂學軌範》 卷之八)



<그림 3> 김홍조 묘 철릭(유물 24)

화수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흙곡공 묘의 철릭은 모두 세 점이다. <그림 1>은 화수회에서 제공한 철릭의 사진이다. 세 점의 철릭 유물 중 한 점으로, 안감이 겹으로 드러나 있는 뒤집혀진 상태이다.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습은 《樂學軌範(1493)》의 철릭(그림 2)과 김흠조(1461~1528) 묘의 철릭(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악학궤범》의 철릭은 ‘단깃’ 형태이지만 유물의 깃은 두 점 모두 ‘이중깃’이다.

철릭은 고려말에 원으로부터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전기에 ‘帖裏’, ‘天益’¹⁰⁾ 등 다양한 한자명칭으로 표기되었던 철릭은 언문으로 ‘털릭’ 또는 ‘털링’으로 기록되었으며¹¹⁾ 그 발음은 언문 표기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형태는 상의에 치마가 연결된 衣長裳短形이다. 특히 치마 부분에는 많은 주름이 잡혀 있어서 철릭을 처음 보는 이들은 여성의 옷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 후기에는 철릭이 무관복이나 동가시 유관자의 용복으로 착용되었고 간혹 巫服으로도 착용되었지만 전기에는 왕 이하 有官者의 戎服으로 착용되었으며 특히 임란 중에는 戎服으로 상용되면서 官服의 역할까지 하였다. 한편 용복과는 달리 왕 이하 하류층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계급에 관계없이 남성들의 便服用 表衣나 中衣로 널리 착용되기도 하고 歌童¹²⁾이나 妓女의 舞服¹³⁾으로 착용되었다. 흙곡공의 철릭은 사대부의 便服用 철릭이거나 戎服用 철릭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종대에 이르기까지의 《실록》 자료에 의하면 單, 袂, 襦 등의 다양한 철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柳靑綿紬와 草綠綿紬, 白綿布 철릭이 많이 착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소재나 색상과 관련하여 紅紬, 朱黃段子, 桃紅紵絲, 藍段子나 藍緋緞, 匹段, 有色綿紬, 鼎紬, 紬, 鴨頭綠紬, 黑麻布, 白苧布 등의 기록도 보인다.

흙곡공의 철릭 세 점은 모두 옷감 폭이 35cm 전후인 綿紬를 겹으로 제작한 것인데, 안감은 겹감에 비해 다소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김흠조 묘의 명주 겹철릭에서도 볼 수 있는 양상이다. 현재의 색상으로 짙은 갈색 1점과 밝은 갈색 2점이 있다. 이들 철릭은 전체적인 외양을 비롯하여 부분적인 바느질법과 상태, 소재 등은 영주 김흠조 묘 출토의 철릭과 거의 동일하다.

철릭 세 점의 길이는 126~130.5cm(평균 128.5cm)로, 함께 출토된 140.5cm 길이의 답호나 147.5cm 길이의 직령에 비해 짧다. 연산군 11년(1505)에 朝士의 철릭을 답호나 단령보다 짧게 만들도록 하였다¹⁴⁾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16세기 말까지는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

10) 안승준, 1998. 「佔畢齋 金宗直이 어머니와 아내로부터 받은 편지」, 『문헌과 해석』 통권5호, 45

11) 조항범, 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서울: 태학사). 1977년 충북 청원군에서 개장된 蔡無易(1537~1594)의 繼配, 순천김씨 묘에서 출토된 간찰 중에 철릭 명칭이 여러 건 등장한다. 순천김씨는 蔡無易보다 먼저 세상을 뜬 인물이므로 이 간찰들은 대체로 임란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털릭’이 6건, ‘털링’이 9건 기록되어 있다.

12) 成觀 外, 1493. 『樂學軌範』 卷之九 冠服圖說(서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5), 390-419

13) 『中宗實錄』 卷八十四 一, 三十二年丁酉三月 癸未 ‘...令兒妓四人着帖裏羽笠而舞 天使觀而樂之...’

14) 『燕山君日記』 卷第五十八 十一年六月 戊寅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선 전기 중에서도 전반기의 철릭은 120~130cm 전후 정도의 비교적 긴 길이이다. 상의(평균 71.5cm)가 길고 하의(평균 57cm)가 짧은 衣長裳短形¹⁵⁾으로 상하비율은 1.2~1.25 : 1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지금까지의 조선 전기 철릭 유물에서 흙곡공(1477~1543)의 철릭까지 확인된다.

화장 역시 직령보다는 다소 짧다. 화장은 119.5~132cm(평균 121.8cm)로서 수구 쪽의 폭은 온 폭이 아니지만 길 한 폭을 포함하여 모두 네 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매는 수구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착수형의 筒袖였으며 모두 긴 소매로서, 半袖形은 없었다. 겨드랑 옆선 길이는 20.5~28cm(평균 23.2cm)로서, 김홍조의 것(평균 27.3cm)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뒷폭은 옷감의 폭에서 다소 줄어든 32~32.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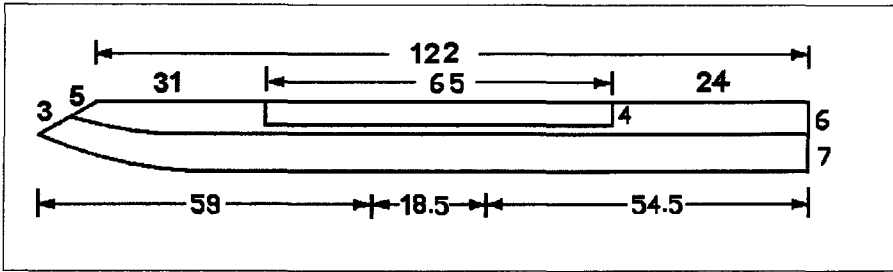
치마에는 細摺兒라고 할만한 0.2cm의 섬세한 주름이 잡혀져 있었으며 허리선 아래로 2cm 내려온 부위에 다시 주름을 고정시키기 위한 징금선이 바느질되어 있다. 또한 안감에는 겹감의 것보다 다소 성근 0.3~0.5cm 정도의 주름을 잡았다. 주름 징금선과 안팎 주름의 나비 차이 등은 김홍조 철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치마 폭 수는 13폭 1점, 14폭 2점으로, 치마 전체 둘레는 434~496cm이다. 成宗代에 내려진 士族 철릭 치마의 13폭 규정¹⁶⁾은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섵 쪽의 겹자락과 겹쳐지는 치마 부위는 거의 26.5~31cm 정도 주름을 잡지 않았다. 김홍조의 것과 유사하다.

겹섵과 안섵은 동시대의 다른 철릭과 마찬가지로 모두 한 조각으로 구성되었으며 겹섵의 가장자리와 안섵의 가장자리 율방향은 모두 사선이다. 김홍조 묘의 철릭 안섵의 가장자리 율방향이 곧은 올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은(1481~1538) 묘의 철릭 7점 중 솜철릭 두 점에서 단일깃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나 흙곡공의 철릭 세 점은 모두 후술할 답호나 직령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중깃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김홍조 철릭과 같다. 특히 목판깃에서 칼깃으로 이행되는 과도기 형태로, 겹섵 쪽 끝 부분이 예각으로 처리된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그림 4)이며 깃길이는 132~137cm였다. 세 점 모두 65cm 전후(나비 4~4.5cm)의 명주 동정이 달려있다.

15) 宣祖 즉위년(1567) 7월에 선조의 등극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許國과 魏時亮이라는 明使가 왔는데(『宣祖修正實錄』 卷之一 二, 卽位年丁卯七月 ○庚午) 그들의 옷은 길이가 짧고 소매는 넓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를 따랐다(『增補文獻備考』 卷之八十 禮考二十七 章服二 ‘...宣廟初年 許魏明使 所着紗帽 直而高 衣短袖濶 舉國效之 笠制亦因而臺高坪狹 至十年間 紗帽頂上微蹲平 衣袖之濶稍減...(중략)...此則 國無所令 而自爾如是也...’)고 한다. 이후 철릭의 전체적인 길이는 10cm 이상 짧아지면서 상하 비례가 점차 역전되기 시작한다. 즉 1 : 1의 비율(정응두, 순천김씨, 흥계강)을 거쳐 임란 전에는 치마가 상의보다 긴 衣短裳長形이 정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16) 『成宗實錄』 卷第十四 十二, 三年壬辰正月 ○己未, ‘自今士族衣服...(중략)...帖裏毋過十三幅...(중략)...庶人衣服...(중략)...帖裏毋過十二幅...’



<그림 4> 흠곡공의 철릭(1)의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

그리고 고름은 조선 전기 袍類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직접부착형 두 쌍 고름'이 달려 있는데, 겨드랑이 옆선 거의 양쪽 끝에 달려 있다. 안고름은 안깃 끝과 왼쪽 겨드랑 옆선 중간 정도에 직접부착형으로 1쌍이 달렸으나 현재는 겹고름과 안고름 모두 잘려져서 조각이나 바느질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점 중 한 점에만 고름을 달기 위한 고름바대가 달려 있다. 중종 25년(1530), '常時에 戎服에 金線으로 入雀을 만들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기록이 있다. 注에 의하면 方言인 '입작'은 고름장식[衣紐飾]이라고 한다.¹⁷⁾ 이것이 바로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금선 등으로 제작한 고름바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화려한 직물의 넓은 고름바대 장식이 있는 것은 일단 융복용 철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흠곡공 철릭의 고름바대는 牧丹蔓草紋段을 사용한 것이었는데, 바대의 머리 형태는 圭(△)의 반쪽 모양인 璋形¹⁸⁾이다. 그 머리부분은 깃 중간의 이중깃 선까지 올라가 달려있다. 깃 가장자리선에 붙인 김흠조의 것과 다르다. 그리고 앞섶 가장자리에 단 문단 고름바대는 두 조각을 이어서 만들었으며 오른쪽 겨드랑 옆솔기 뒤쪽에 달린 고름바대는 세 조각을 이어서 달았다.

김흠조 분묘 출토의 철릭과 비교해 볼 때, 옆선 길이가 다소 짧다. 그리고 안섶의 바깥쪽 올방향이 김흠조의 것에서는 대부분 곧은 울로 되어 있었던 반면에 흠곡공의 것에서는 모두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안섶 올방향의 차이는 시대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바느질하는 사람의 재단 습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철릭 두 점에는 깃 끝과 치마 끝 모서리 등에 끝 모양을 내기 위해 사용한 꼬여진 실꼬리가 아직도 매달려 있었다. 새 옷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 『中宗實錄』 卷六十七 三十六, 二十五年庚寅二月 ○甲申 '...常時於戎服見之 以金線爲入雀[入雀者方言也 衣紐飾也] 此譯不可爲者也...'

18) 王圻, 『三才圖會』 器用二卷 二十七 ○赤璋 '周禮赤璋禮南方半圭曰璋形'

2. 直領

‘직령’이란 글자의 의미 그대로 ‘곧은 깃’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곧은 깃이 달린 포류’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더 좁은 의미로는 관복형의 옷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관복형의 옷으로는 ‘직령’이라는 명칭 외에도 ‘直領衣’, 또는 ‘直領袍’라고도 하였다(그림 5).

이 옷은 단령과 깃의 형태에서만 차이가 날 뿐 다른 부위는 거의 동일하다. 홀과 겹, 숨 직령이 있으며 허리에는 絲帶, 즉 條兒를 띠었다.



<그림 5> 김홍조 묘의 직령(유물 8)

직령은 고려 辛禡 13년(1387)에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제정된 바 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세종 28년(1446)에 철릭이나 액주름과 더불어 庶人,各司 諸員, 隊長, 隊副, 外方의 日守兩班, 工商 및 賤隸의 복식으로 규정되었다. 동왕 31년(1449)에는 各殿과 各宮의 別監과 典樂署의 樂工의 상복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졸곡 전 왕세자의 進見服으로 착용된 것을 비롯해서 別監, 小親侍, 各差 備人들의 喪服으로 착용되었다는 기록도 볼 수 있다.

한편 중종 13년(1518)에 ‘왕이 理學을 볼 때는 의관을 정제해야 되는데 직령 같은 것은 심의와 같으니 좋다’고 한 기록, 동왕 23년(1528년) ‘직령을 입고 재상을 찾아가 배알하려 했다면 절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직령을 입고 갔겠는가’라는 기록, ‘직령은 평상복이지 正服은 아니다’라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중종대 당시 관직에 있는 사대부의 직령은 연거시의 上服, 혹은 크게 격식을 갖추지 않은 간편한 외출복으로도 입혀졌던 옷이었음을 알 수 있다.

〈清江先生笑叢〉 19)에도 직령이 당시 일반 남성의 대표적인 의복임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대춘 중인이 황대임 숙감의 집에 가서 언제고 말하기를...(중략)...그 글을 잘한다는 여자를 불러보니 直領에 條兒를 띤 엄연한 남자였다.’

19) 李濟臣, 『清江集』(서울: 全義李氏清江公派花樹會, 1992 영인본), 89.

홉곡공의 직령은 명주 접옷인데 그것 역시 김홍조 분묘 출토의 직령과 그 규모나 부분 바느질법 등에 차이가 거의 없다. 뒷길이는 147.5cm로, 수거된 복식류 중에서 가장 길다. 화장 역시 가장 긴 129.5cm이다. 진동은 49cm, 수구는 38cm로 점차 수구 쪽으로 가면서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 겨드랑 옆선길이는 13cm로 철통(평균 23.1cm)이나 답호(16.5cm)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짧다.

대신 무의 길이는 80cm를 넘는 긴 길이이다. 두 조각으로 구성된 커다란 직사각형의 무(42.5×80.5cm)가 달려 있다. 무에는 답호와 마찬가지로 대소 주름이 잡혀져 있으며 무 위 부분에는 사각형(완성 상태)의 무 덧대기도 달려 있다. 조선시대 무의 유형 중에서 ‘다중 안 주름형’ 무 양식의 다음 단계인 ‘대소 안팎주름형’²⁰⁾ 무 양식이다. 즉 옆선 안으로 작은 주름을 접어 넣고 남은 무로 밖으로 향하는 큰 주름을 접는다. 큰 주름의 윗부분은 삼각형으로 접어 큰 주름 사이로 넣는다.²¹⁾

무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달았던 무 덧대기를 다는 순서는 김홍조의 직령과 차이가 있다. 즉 김홍조의 것에서는 옆선에 무를 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덧대기를 달았는데, 홉곡공의 것은 옆선에 무를 달기 전에 미리 덧대기를 달고 그 후 옆선에 무를 달았다는 점이 다르다.

겉선은 답호와 마찬가지로 큰 쇄와 작은 쇄으로 이루어진 이중쇄이고 안선은 단쇄이다. 특히 안선의 가장자리 선은 올방향으로 재단되어 있어서 후대의 방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사선으로 안선 가장자리 선을 재단한 김홍조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외에 깃은 다른 포류와 마찬가지로 이중깃이며 그 형태도 동일하다. 깃길이는 철통(평균 134.6cm)이나 답호(146cm)보다 약간 긴 147cm이다. 고름은 여전히 ‘직접부착형 두 쌍 고름’이지만 옆선의 길이가 다소 짧아져서 상하 고름 달리는 간격도 좁아졌으며 고름바대는 답호와 마찬가지로 없다. 안깃 끝과 왼쪽 겨드랑 안쪽 옆선 상에 달린 한 쌍의 안고름은 역시 한 쌍을 다는 직접부착형인데 현재 고름은 없고 그 흔적만 남아있다.

3. 裕胡

답호는 1점이 수거되었다. ‘塔胡’, ‘裕複’ 등으로 표기되었던 조선 전기의 답호는 半袖衣(그림 6)로서, 소매만 짧은 뿐 다른 부위는 직령과 동일하다.

《實錄》이나 《國朝五禮儀》 등의 기록에서 단령과 답호, 철통이 한 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령을 입지 않는 평상시에는 철통의 덧옷으로 입혀졌을 것으로 생각

20) 李恩珠, 1999.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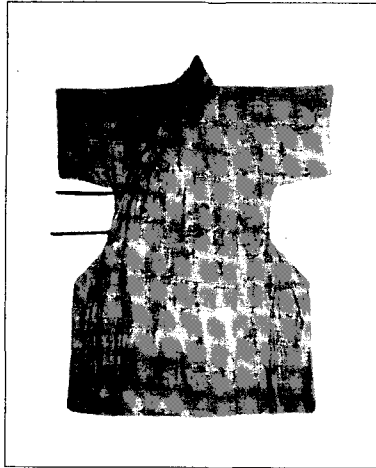
21) 이은주, 1998.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金欽祖(1461-1528) 분묘 출토 단령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2호, 133.

된다.

중종 때까지의 《실록》에는 單, 袂, 襦의 답호 종류가 확인되며 疋緞, 紵絲, 段子, 紬, 綿紬, 鼎紬 등의 옷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鴉靑, 草綠, 柳靑, 茶褐 등 답호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色名이 보인다.

흙곡공 묘에서 수거된 답호 한 점은 명주 겹답호인데, 그 길이는 140.5cm로서 직령보다는 짧고 첼릭보다는 길다. 화장은 길 한 폭에 반폭의 소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길이는 52cm이다. 그리고 진동 길이는 49cm, 수구 쪽은 47cm이다.

겨드랑 옆선 길이는 김흙조의 것보다 다소 짧은 16.5cm인데 무의 길이는 77cm로서 차이가 없다. 옆선에 붙은 무는 8cm 좁은 폭 하나를 연결한 후 다시 온 폭 하나를 이어서 두 조각으로 구성하였으며 김흙조의 것파 마찬가지로 ‘대소 안팎주름형’의 무로 처리하였다.



<그림 6> 김흙조 묘의 답호
(유물 15)

답호에도 직령처럼 고름바대 없이, ‘직접부착형 두 쌍 고름’이 달렸는데 고름 끝 부분의 조각만이 남아 있다. 김흙조의 답호에서도 홀 답호 2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9점 모두 고름바대 없이 ‘직접부착형 두 쌍 고름’이 달리는 형식이었다. 안고름 역시 안깃 쪽과 왼쪽 겨드랑 안쪽 옆선 상에 직접부착형의 고름 1쌍을 달았으나 현재는 떨어져 없어진 상태이다. 겹섶은 큰 겹섶과 작은 겹섶으로 구성되는 이중섶 양식이었고 안섶은 단섶이다. 직령의 섶 구조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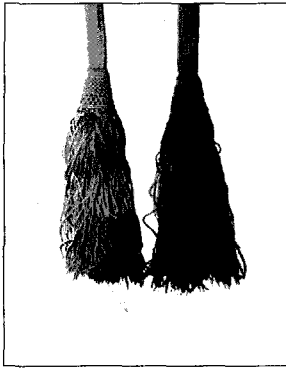
깃은 첼릭보다 다소 긴 146cm인데, 길이가 70.5cm, 나비가 4cm인 명주 동정이 달려 있다.

4. 條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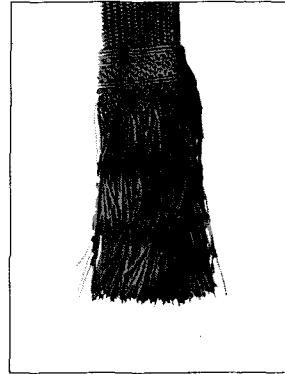
‘도아’는 견사로 치밀하게 짠 絲帶를 말한다. 중종대까지의 기록에 ‘絲帶’, ‘回回條兒’, ‘鴉青廣條兒’, ‘大紅細條’ ‘紅條兒’ 등의 帶와 관련된 명칭이 보인다.

흙곡공의 도아는 밝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상태는 대단히 양호하다. 전체 길이는 260cm이고 나비는 1cm인데, 양끝에 정교한 술장식(그림 7)이 달려 있다. 김흙조 분묘에서도 도아 1점이 출토되었는데 술 장식의 형태(그림 8)는 거의 유사하나 끈 나비는 흙곡공의 것이 반 정도로 좁다.

《실록》, 《經國大典》²²⁾ 등의 기록이나 초상화²³⁾에서 알 수 있듯이, 하급관리는 단령에도 條兒를 사용하였지만 일반 사대부들은 직령 등의 袍에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 흙곡공 묘의 도아 술



<그림 8> 김흙조 묘의 도아 술(유물 48)

이상의 복식을 실측한 실측치수와 실측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崔恒 外, 1485. 『經國大典』三 十三~十四, 禮典, 3품까지는 私服에 紅條兒를 띤다.

23) 金璣(1500~1582)의 초상화에 직령에 띤 도아를 확인할 수 있다. 中央日報社 編, 1993, 『人物畫』(서울: 中央日報社), 圖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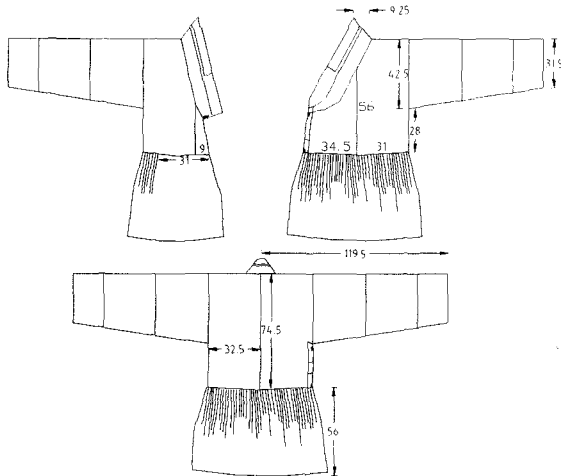
Ⅲ. 이인손 묘 출토복식의 실측치수와 실측도

1. 철릭(1)

유물 1	질은 갈색 명주 겹 철릭			특	징	사	진		
겉 감	소재	명주	나비	35	- 상대: 원형 - 겹고름바대: 모란당초문단(조각) - 안깃: 굴리고 사선으로 잘림 - 치마주름: 허리선 2cm아래 정급선 - 치마폭(14폭, 총454):34/35/34/34/ 34/35/35/34/35/35/35/20/19				
			밑도	36×34/cm					
안 감	소재	명주	나비	30.5					
			밑도	21×26/cm					
겉감색									
1	뒷길이(외+상)		130.5(74.5+56)		18	안설킨이:내/외(올방향)		32/21(사선)	
2	화장(각 폭 나비)		119.5(33+34+33+19.5)		19	안설킨이:상/하		4.5/9	
3	진동/소매솔기길이/수구		42.5/39.5/35/31.5		20	겹고름바대	형태/소재		瓊形/모란당초문단
4	겨드랑 옆선길이		28				나비/길이		3/30.5(22.5+8)-33
5	뒷폭		32.5		21	겹고름위치	겹 섹 쪽		(겹깃 끝 기준) 0/24.2
6	치마둘레/폭수/주름나비		454/14폭/0.2(안 0.5)				안 섹 쪽		(겨드랑점 기준) 2/25.5
7	허리바대(안):길이/나비		없음		22	겹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2/?	
8	허리바대(안) 소재		-		23	안 쪽 옆선 바대	형 태		없음
9	깃길이(겹깃+고대+안깃)		132(59+18.5+54.5)				나비/길이		-
10	깃나비(내+외)/깃상대		13(7+6)/겹(한지삼?)		24	안고름위치	안 섹 쪽		(안깃 끝 기준) 내측
11	겹깃끝나비(내+외)/길이		8(3+5)/122				左 腋 쪽		겨드랑점에서 14.5
12	동정 위치:겹깃끝/안깃끝		31/24		25	안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2(조각)?	
13	동정 길이/나비		65/4		26	어깨 바대	형 태		없음
14	앞폭(섹+길)/앞처집		65.5(34.5+31)/2.5				나비/길이		-
15	겹섹길이:내/외(올방향)		56/27.5(사선)		비 고	- 안깃형이 굴려지고 사선으로 잘림 - 안깃폭 폭 9cm, 길이 사선으로 5cm 잘림 - 겹고름바대 우액쪽 세조각(30.5=13.2+9.6+7.7)			
16	겹섹나비:상/하		31/34.5						
17	안섹쪽 주름없는부분		31						

(단위 : cm)

JY 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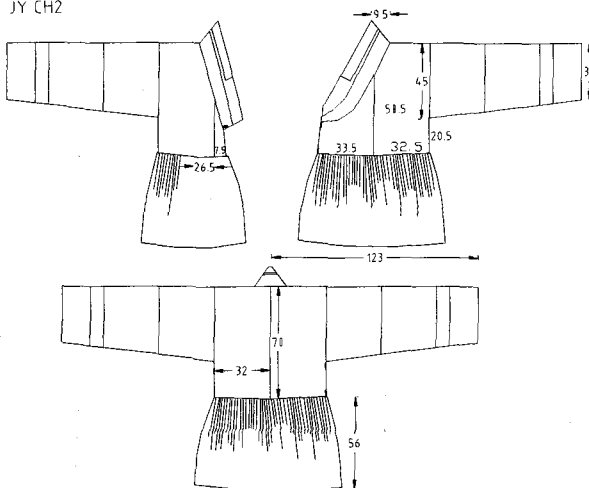


2. 철릭(2)

유물 2		열은 갈색 명주 겹 철릭			특 징		사 진	
겉 감	소재	명주	나 비	36	- 상태: 원형 - 고름바대: 없는 것이 특징 - 치마 주름: 허리선 2cm ↓ 장금선 - 치마폭(13폭, 총434cm): 32/33/34/33/33/34/35/34/33/34/34/33/33			
			밑 도	34×32/cm				
안 감	소재	명주	나 비	32				
			밑 도	26×18/cm				
겉 감 색								
1	뒷길이(외+상)		126(70+56)				18	안설킬이: 내/외(울방향)
2	화장(각 폭 나비)		123(32+33+33+8+17)		19	안설킬이: 상/하	5/7.5	
3	진동/소매솔기길이/수구		45/41/39/37/34		20	겉고름바대	형 태	없음
4	겨드랑 옆선길이		21				나비/길이	-
5	뒷폭		32		21	겉고름위치	겉 섹 쪽	(겉깃 끝 기준) 0/15
6	치마둘레/폭수/주름나비		434/13폭/0.2(안 0.5)				안 섹 쪽	(겨드랑점 기준) 1.5/19
7	허리바대(안):길이/나비		없음		22	겉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흔적)?
8	허리바대(안) 소재		-		23	안 쪽 옆선 바대	형 태	없음
9	깃길이(겉깃+고대+안깃)		135(60+19+56)				나비/길이	-
10	깃나비(내+외)/깃상태		13(7+6)/겹		24	안고름위치	안 섹 쪽	(안깃 끝 기준) 내측
11	겉깃끝나비(내+외)/길이		7(2.5+4.5)/128				左 腋 쪽	겨드랑점에서 6.5
12	동정 위치:겉깃끝/안깃끝		29/27		25	안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
13	동정 길이/나비		71/4.5(0.7 파이평 선)		26	어깨 바대	형 태	없음
14	앞폭(섹+길)/앞처짐		66(33.5+32.5)/5				나비/길이	-
15	겉섹길이: 내/외(울방향)		50.5/19.5(사선)		비 고	- 겉깃, 안쪽 치마 끝에 실꼬리 매달려 있음		
16	겉섹나비: 상/하		30.5/33.5			- 같은 색 고름		
17	안섹쪽 주름없는 부분		26.5			- 겉섹쪽 치마에도 2cm 정도 주름 없음		

(단위 : cm)

JY C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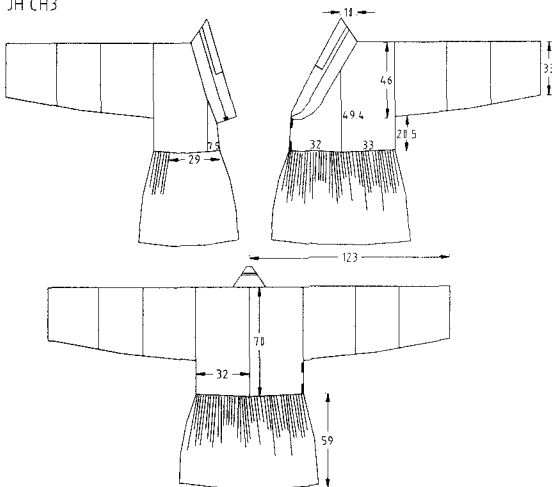


3. 철릭(3)

유물 3		열은 갈색 명주 겹철릭		특 징		사 진		
결 감	소재	명 주	나 비	34.5	- 상태: 원형 - 고름바대: 없는 것이 특징 - 치마 주름: 허리선 2cm ↓ 징금선 - 치마폭(13폭, 총434cm): 31/32/ 35/35/34/35/33/34/34/34/35/34/ 32/29			
			밑 도	33×35/cm				
안 감	소재	명 주	나 비	29.5				
			밑 도	22×18/cm				
겉감색								
1	뒷길이(외+상)		129(70+59)		18	안설킨길이:내/외(올방향)	27.5/16(사선)	
2	화장(각 폭 나비)		123(33+32+27+31)		19	안설킨나비:상/하	4.5/7.5	
3	진동/소매슬기길이/수구		46/43/39/33		20	겉고름바대	형태/소재 나비/길이	없음 -
4	겨드랑 옆선길이		20.5					
5	뒷폭		32		21	겉고름위치	겉선평	(겉깃 끝 기준) -0.5/14
6	치마둘레/폭수/주름나비		496/14폭/0.2(안 0.5)				안선평	(겨드랑점 기준) 1.5/15
7	허리바대(안):길이/나비		없음		22	겉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2(조각)?	
8	허리바대(안) 소재		-		23	안 쪽	형태/소재	없음
9	깃길이(겉깃+고대+안깃)		137(60+20+57)				옆선 바대	나비/길이
10	깃나비(내+외)/깃상태		15(7.5+7.5)/겹		24	안고름위치	안 선평	(안깃 끝 기준) 중앙
11	겉깃끝나비(내+외)/길이		4.5(1.5+3)/132.5				左 腋 쪽	(겨드랑점 기준) 8.5
12	동정 위치:겉깃끝/안깃끝		32/31.5		25	안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2.5/?	
13	동정 길이/나비		69/4.5		26	어깨 바대	형태/소재	없음
14	앞폭(섶+길)/앞처짐		66(32+33)/3				나비/길이	-
15	겉설킨길이:내/외(올방향)		49.4/19.5(사선)		비 고	- 겉깃끝, 안쪽 치마 끝에 실꼬리 매달려 있음 - 짙은 색 고름		
16	겉설킨나비:상/하		31/32					
17	안선평 주름없는부분		29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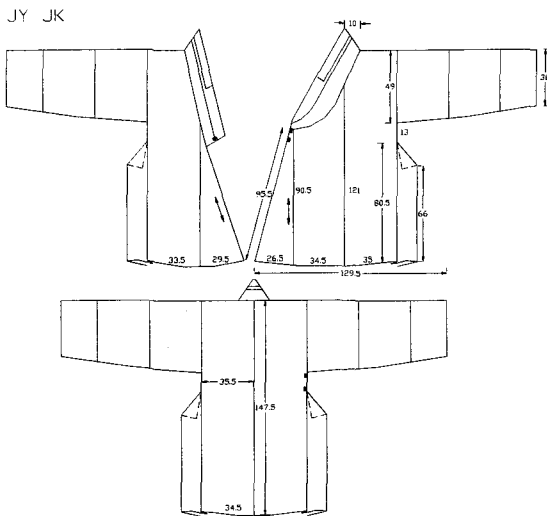
JH CH3



4. 직령

유물 5		집은 갈색 명주 겹직령		특 징		사 진
겉 감	소재	명주	나비	36	- 상태: 원형 - 철릭(1)과 동일 색상 - 안섷쪽 길 밑부분, 7자 보수 - 옆선 무 덧대기: 직사각형 옆선에 무 달기 전에 깨멤	
			밑도	35×28/cm		
안 감	소재	명주	나비	33.5		
			밑도	22×16/cm		
겉감색						
1	뒷길이	147.5		18	안섷길이:내/외(올방향)	103/85(직선)
2	화장(각 쪽 나비)	129.5(35+35+35+24.5)		19	안섷나비:상/하	4.5/25
3	진동/소매솔기길이/수구	49/46.5/44/38		20	겉고름바대	형태/소재 없음
4	겨드랑 옆선길이	13			나비/길이	-
5	뒷폭/뒷길밑단(중심→무)	35.5/77(34.5+35+7.5)		21	겉고름위치	겉섷쪽:상/하 (겉깃끝 기준) 0/6.8
6	무길이:내/외/막음	80.5/66/4			右腋쪽:상/하 (겨드랑점 기준) 2/8.5	
7	무주름:내/외	5/15.5		22	겉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2/?
8	겉길밑단(쇼→무)	139(26.5+34.5+35+35.5)		23	안 쪽	형태/소재 없음
9	겉섷길이:내/중/외(올방향)	121/90.5/95.5(사선)			옆선 바대	나비/길이 -
10	큰겉섷 나비:상/하	30.5/34.5		24	안고름위치	안 섷 쪽 (안깃 끝 기준) 중앙
11	작은겉섷 나비:상/하	1.8/26.5			左 腋 쪽 (겨드랑점 기준) 9	
12	깃길이(겉깃+고대+안깃)	147(68+20+59)		25	안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2/?
13	깃나비(내+외)/깃상태	14.5(7+7.5)/겹		26	어깨 바대	형태/소재 없음
14	겉깃끝나비(내+외)/길이	4(2+2)/134			나비/길이	-
15	동정위치:겉깃끝/안깃끝	39/34		기타	- 무 덧대기: 직사각형 (윗변/아랫변/높이=5/5/7)	
16	동정:길이/나비	71/5				
17	안길밑단(쇼→무)	106(29.5+33.5+35.5+7.5)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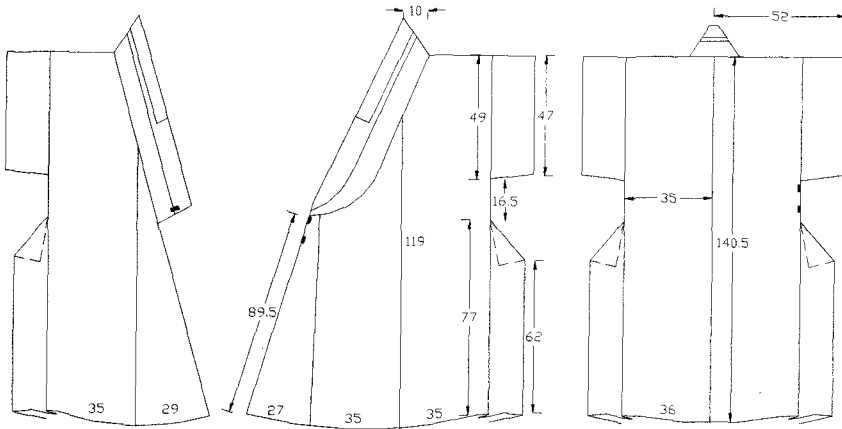


5. 답호

유물 4		열은 갈색 명주 겹담호			특 징		사 진	
겉 감	소재	명 주	나 비	36	- 상태: 원형(우액, 주름 등 보수) - 2쌍형 고름(떨어진 상태) - 철릭(2)와 동일 색상			
			밀 도	32×34/cm				
안 감	소재	명 주	나 비	32				
			밀 도	25×19/cm				
겉감색								
1	뒷길이		140.5		18	안섵길이:내/외(올방향)		102/79(직선)
2	화장(각 폭 나비)		52(35+17)		19	안섵나비:상/하		9/29
3	진동/수구		49/47		20	겉고름바대	형태/소재	없음
4	거드랑 옆선길이		16.5			나비/길이	-	
5	뒷폭/뒷길밀단(중심→우)		35/79(36+8+35)		21	겉고름위치	겉섵쪽:상/하	(겉깃 끝 기준) 0/10.5
6	무길이:내/외/막음		77/62/2				右腋쪽:상/하	(거드랑점 기준) 2/11.5
7	무주름:내/외		4/16		22	겉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2.2/?
8	겉길밀단(섵→우)		140(27+35+35+8+35)		23	안 쪽	형태/소재	없음
9	겉섵길이:내/중/외(올방향)		119/87/89.5(사선)			옆선 바대	나비/길이	-
10	큰겉섵 나비:상/하		32/35		24	안고름위치	안 섵 쪽	(안깃 끝 기준) 중앙
11	작은겉섵 나비:상/하		2/27				左 腋 쪽	(거드랑점 기준) 9
12	깃길이(겉깃+고대+안깃)		146(67+20+59)		25	안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2.5/?
13	깃나비(내+외)/상태		15(7.5+7.5)/경		26	어깨 바대	형태/소재	없음
14	겉깃끝나비(내+외)/길이		4(1.5+2.5)				나비/길이	-
15	동정위치:겉깃끝/안깃끝		38/33		비고			
16	동정 길이/나비		70.5/4					
17	안길밀단(섵→우)		107(29+35+8+35)					

(단위 : cm)

JY DP



IV. 맺음말

이상으로 살펴본 흙곡공 분묘에서 수거된 출토복식은 현재까지 보고된 조선 전기 출토복식 분묘 중 네 번째의 것에 해당된다. 조선 전기에서 복식형태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1567년 이전의 것이므로 조선 전기 중에서도 전반기의 것에 해당된다.

철릭 3점과 직령, 답호, 도아 등 6점의 유물은 조선 전기 중종대 사대부가 착용했던 대표적인 服飾類였으며 각 유형의 형태에서 조선 전기의 특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5년 앞서 타계한 정온의 것보다는 오히려 15년 일찍 사망한 김흠조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과 더욱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지역적인 차이 타인지, 아니면 관직의 유무 등과 관련된, 유행 수용의 정도 차이인지 훗날의 연구성과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袍類의 길이는 김흠조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깃의 형태, 쇄의 구조, 무의 구조 등은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답호와 직령의 경우, 옆선의 길이가 金欽祖의 것에 비해 짧고 鄭濼의 것과는 유사하였는데, 이는 시기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옆선이 짧아졌기 때문인지, 답호와 직령의 무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조선 전기 다른 묘의 것과 마찬가지로 깃 양식도 이중깃인데, ‘목판형 이중깃’과 ‘칼깃형 이중깃’의 중간 단계인 ‘반목판형 예각 이중깃’이었다. 정온의 것보다는 김흠조의 것과 유사하였다.

직령과 답호의 겹섶은 이중섶 양식이고 안섶은 단섶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으며 겹섶이 이중섶이기 때문에 자연히 앞자락이 넓어져서 여밈이 깊어서 겹깃의 끝 부분은 거드랑점에 이르렀다. 거드랑 옆선의 길이에 맞추어 옆선 양끝에 좁고 가는 ‘직접부착형 두 쌍 고름’을 달았는데 옆선이 짧아졌기 때문에 상하로 부착시킨 고름의 간격은 좁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답호와 직령의 안섶 바깥쪽 울방향은 조선 후기의 울방향과 일치하여 김흠조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신 철릭의 안섶 울방향은 사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김흠조의 것과는 달랐다.

특히 ‘入雀’일 것으로 추정되는 용복용 고름바대 장식이 철릭 1점에서 확인되었는데, 그 형태는 璋形으로, 牧丹蔓草紋緞을 이어서 만든 것이었다. 깃 중간의 바느질선까지 올라가 달린 것이 깃 가장자리 선까지 달린 김흠조의 것과는 달랐다.

전체적으로 鄭濼의 유물보다는 金欽祖의 유물들과 유사한 점이 더 많았으나 차이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차이점이 시간적 차이인지, 아니면 지역이나 집안의 바느질법 등에 의한 차이인지 단정짓기는 이른다. 이러한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후일의 발굴 보고될 자료들에 기대해 본다.